



기조강연 1

11:00~11:30

| 발표주제 |

수소모빌리티 정책 방향



이민우 과장, 산업통상자원부

학력 카네기멜론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석사, 2008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2000

경력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 과장, 2020~현재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2017
산업부 수출입과 과장, 2016

| 발표초록 |

우리나라는 “작년 2년 연속 수소차 판매 세계 1위, 국내 수소차 보급 1.1만대, 발전용 연료전지 보급 세계 1위를 달성하는 등 수소경제의 성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으며, 한국판 뉴딜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신속한 경제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친환경차 미래 모빌리티인 수소전기자동차 시장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수소경제 선도국가(First Mover)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을 배경으로, ‘25년까지 수소전기자동차 20만대 보급 등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개발은 ‘한국판 뉴딜 종합대책’의 10대 대표과제 중 하나이다.

그동안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수소전기자동차의 국내보급은 16년말 누적 87대에서 작년 6월 누적 7,682대로 88배이상 성장했으며, 해외 수출도 16년 누적 552대에서 작년 6월 누적 2,405대로 4배 이상 성장하였다.

특히, 수송차량 중에서 전체 미세먼지 배출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버스·화물차 등 사업용 수송차량을 친환경 자동차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수소버스 및 수소트럭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 아울러, 수소모빌리티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정부 세종청사 내 수소충전소 구축(‘20.8월) 등을 통해 수소 안전 홍보, 그린수소 해외사업단 출범을 통해 글로벌 수소 협력 방안 등으로 수소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경제의 기본이 되는 값싼 수소를 공급하기 위해 액화수소 생산·운송·보급·활용 전반을 아우르는 일괄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액화수소 안전기준 마련 등 제도개선을 조속히 추진하여 한반도가 수소산업의 허브가 반드시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